



## “태풍이라 쓰고 극복이라 읽는다.”



김진영  
한국방재협회장

“말이 통하고 가슴이 뜨거워져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2005년, 곽경택 감독의 영화 ‘태풍’의 포스터 문구이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시한폭탄을 태풍에 실려 보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사투, 미묘한 남과 북의 대결구도 등 재미있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숙명이고 헤쳐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태풍’은 매우 적절한 영화 제목이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일기예보에서 ‘찬홈’, ‘린파’, ‘낭카’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오곤 했는데, 모두 약간은 생소하면서 이질감마저 느껴지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현재 태풍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140개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태풍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호주의 예보관들이었다고 하는데,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이 앤더슨이라면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앤더슨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태풍 예보를 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예보관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주로 사용했고, 이러한 전통에 따라 태풍 이름이 여성이었다가 여성운동가들의 남녀차별 이유를 들어 1978년 이후부터

는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 이름은 1999년까지 꿈에 위치한 미국 태풍합동경보 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했었다. 그 후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태풍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태풍 이름을 서양식에서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태풍이 보통 연간 약 30여 개쯤 발생하므로 전체의 이름이 다 사용되려면 약 4~5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제비’, ‘너구리’, ‘고니’ 등의 태풍 이름을 제출했고, 북한에서도 ‘기러기’ 등 10개의 이름을 제출해 한글 이름의 태풍이 많다.

한글이름의 태풍 가운데, 기억에 생생한 것이 ‘매미’이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131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관측된 강풍, 폭우 및 해일은 가히 기록적이었다. 추석 연휴에 북상한 이 태풍이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으로 상륙하면서 특히, 마산지역은 해일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극심했다. 태풍의 위협반경에 위치한 경상남도 해안지방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부산항 크레인의 붕괴, 선박 침몰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는 그 세력이 약해지는 일반적인 태풍과 달리 최성기의 위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풍 매미는 북한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큰 피해에 따라 ‘무지개’로 대체되었다.

지난 107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기억된다. 이 태풍은 2002년 8월 30일~9월 1일 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 막대한 강수를 기록하여 이재민 8만 8천여 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피해 5조 1,419억 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태풍 ‘루사(RUSA)’의 특징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며 강한 폭풍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특히, 제주도의 고산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56.7%의 초강풍이 불었다. 이 기록은 종전 41.2%의 고산 최대순간풍속 1위를 경신했다. 또한, 강릉지방에서 8월 31일 일강수량이 870.5mm(종전 305.5mm/1954년 9월 14일)를 기록하여 연평균 강우량(1401.9mm)의 62%를 보여 전국 기상관서의 기상 관측이래 가장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한 호우가 집중된 지역은 강원 영동지방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부내륙산간과 김천, 추풍령 등 중부 내륙산간지방에서 50~100mm/h(강릉, 100.5mm/h)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특히 비는 종종 홍수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고 하천길이가 짧아

내린 비가 대부분 짧은 시간에 유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종종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2003년 ‘매미’는 순간최대풍속 60m/s, 2012년 ‘볼라벤’의 경우도 순간최대 풍속 59.5m/s의 기록적인 풍속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태풍은 무더위나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비를 뿌려주어 가뭄을 해결해주고 때로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태풍이 몰고 오는 비는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관리하고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수자원확보와 방재를 접목한 물 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에게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우리의 뛰어난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투자은행(AIIB)의 출범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방재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도 우리가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태풍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로써 관련기관에서는 태풍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방재협회에서는 생활안전 정보로 태풍특보시의 국민행동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태풍특보시의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실 태풍은 지구의 에너지흐름 현상의 하나로써 적도 근처의 열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전달해서 지구의 열적 평형을 맞춰주는 자연현상의 하나이다. 따라서 해수면 온도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발생빈도가 높다. 그러나 한때 우리 조상들은 태풍을 하늘이 진노해서 천지를 벌하는 것이라 믿던 시기가 있었다.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임금님이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올 때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대 과학이 발달한 현재의 시각에서 보자면 참으로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태풍은 매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몇 개는 우리를 방문하게 되며 우리는 그때마다 맞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와 같은 태풍은 다시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솔직한 심정이고, 적당한 비와 바람을 몰고 가볍게 한반도를 지나가는 상냥한(?) 태풍만 만나기를 바란다면 큰 욕심일까?